



주간 통일정세

2013-3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9/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내무군(우리의 경찰에 해당) 협주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리설주는 지난달 초 남편과 함께 '전승'(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0주년 경축 열병식 참가자를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이후 한 달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함.
 - 김 제1위원장은 '선군의 나의 조국'이라는 제목의 공연 관람 후 "오늘 공연을 보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해가려는 내무군 장병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공연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함.

- **北 김정은, 서해 최전방 장재도·무도 방어대 시찰(9/3, 조선중앙통신)**
 - 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해 최전방에 있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작년 8월 중순 장재도·무도를 처음 찾았으며 이후 올해 3월 초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이 곳을 시찰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장재도에서 "중전의 건물들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새로 꾸린(건설한) 병영(내무반)과 살림집(주택), 진지를 돌아보면서 건설 상태와 방어대의 요새화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국제 IT경연대회 참가 독려(9/3, 연합뉴스; 조국)**
 - 북한 내각 교육위원회 정영희(54) 국장은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월간지 '조국' 9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이 최근 "우리 대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프로그램 경연들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둬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치도록 국제경연 참가를 조직화할 데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밝힘.
 - 이어 "우리는 이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국제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과 '코드쉐프' 프로그램작성대전 경연은 물론 인터넷상에서 진행되는 기타 프로그램 경연들에도 주의를 돌리고 거기에도 적극 참가하려고 한다"고 덧붙임.

- **北 김정은, 서해 최전방 또 시찰...대남 위협언사 없어(9/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백령도 타격부대인 서해 최전방의 월내



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월내도방어대를 새로 잘 꾸려주는 것은 외진 섬 초소에서 청춘시절을 바쳐가는 군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조국 수호의 전초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함.

● 北 "민심이 당·국가활동의 근본원칙"(9/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은 민심을 중시하고 민심에 철저히 의거할 때 가장 공고한 사회적 단합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민심을 틀어쥐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이 당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고 있기에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나라의 모든 일이 다 잘되어 나가고 있다"고 민심을 거듭 강조함.

● 北 김정은 부부, 로드먼과 농구경기 관람(종합2보)(9/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방북 중인 미국프로농구(NBA)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을 만나 농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새벽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로드먼 일행을 만나 "좋은 계절에 벗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아무 때든 찾아와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라"고 말함.

● 北, 정권 수립 65주년 맞아 애국심·충성심 독려(종합)(9/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1면에 실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조선 만세'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국가의 성과와 인민의 장래운명은 어떤 영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며 "두 분의 위대한 태양(김일성·김정일)을 모시어 공화국의 역사도 위대하다"고 주장함.
- 이어 "애국의 불타는 열망으로 대원수님(김일성·김정일)들의 영생을 대대손손 지켜 드리자"며 "원수님(김정은) 따라 최후승리를 향해 끝까지 갈 심장의 맹세를 올리자"고 독려함.

■ 김정은동향

- 9/2,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인민내무군협주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 '선군의 나의 조국' 관람(9.2, 중통·중방)
- 박봉주,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김양건, 최부일 관람
- 9/2, 김정은 黨 제1비서, 9.1 김치선(女, 100살)에게 '생일상' 전달(9.2, 중통)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시찰 및 "섬 방어대들을 꾸리는데 기여한 단위들"에 '감사' 전달(9.3,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등 동행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애국돌공장(황해남도 해주시) 현지지도(9.3,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등 '장재도·무도영웅방어대 시찰 수행 간부들' 동행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월내도방어대 시찰(9.3, 중통)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동행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룡연바닷가 양어사업소 현지지도(9.3, 중통)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동행
- 9/5, 김정은 黨 제1비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과 근로자들'(육해운성 산하 청진대리사무소 부원 윤병철·농업성 산하 지구자재공급소 노동자 김종철 등)에게 감사 전달(9.5,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美 NBA 前 선수 '데니스 로드먼'과 담화 및 농구경기(4.25팀 : 압록강팀) 관람후 만찬 마련(9.7,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9.7 정권 수립 65돌 즈음 전체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축하문 전달(9.7,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재생 에너지법(6개 장·46개 조항)" 새로 채택·발포(9.2, 중통)
- '北 정권 수립(9.9) 65돌 즈음 '모두다 黨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이 발전된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빛내어 나가자'고 호소(9.4, 중통·노동신문)
- 김정일 저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발표 5돌 즈음 '김정일의 사회주의 강국의 선군영도 업적' 칭송 및 "경제강국·사회주의 문명국건설 창조" 강조(9.5, 중통·노동신문)

나. 경제

● 北 '가을걷이 전투' 시작...추수 준비에 총력전(9/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일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를 제철에 와닥닥(빨리)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평안남도) 숙천군 농업근로자들의 꺾기모임이 2일 열두삼천 농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행사에서 연설한 농민들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방향으로 정해주고 비료와 비닐 박막 등 영농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줬다"라며 전역의 농민에게 추수를 제철에 끝내자



고 호소함.

● 北, 벌써 '올해 생산계획 완수' 보도 잇달아(9/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평안남도 덕천 탄광기계공장에서 8월 말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했다"라며 "가공직장, 제관직장의 노동자들은 연초부터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연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정치)

- 덕천탄광기계공장(평안남도)에서 "8월말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 지표별로" 완수(9.5,중통)

다. 사회·문화

● 北 '리경선' 이어 '전경선' 띄우기(9/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일꾼들의 혁명적 군중관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남흥화학을 방문해 전경선을 칭찬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경선 동무를 비롯한 기업소 일꾼들의 군중관점과 일본새(작업태도)는 우리 일꾼들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밝힘.

- 신문은 "우리 일꾼들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일꾼들의 군중관점과 일본새를 본받아 앞채를 메고(앞장 서서) 일할 때, 인민을 위한 당의 사랑과 은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해 뛰고 또 뛸 때, 인민생활 향상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교육절' 맞아 교육부문 성과 선전(9/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교육절을 맞아 '주체교육이 걸어온 자랑찬 역사를 더듬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후대들을 위한 (김일성 주석의) 사랑 속에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학교가 세워지고 전반적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에 이어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됐으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새 역사가 펼쳐졌다"고 보도함.

- 신문은 선대 지도자들의 '승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원대한 구상'으로 북한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며 "뜻깊은 9월을 맞은 우리 인민과 교육자들의 가슴은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우뚝 솟으리라는 긍지와 확신으로 설렌다"고 강조함.

● 北 '9·9절' 앞두고 연일 '살기좋은 평양' 선전(9/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은혜로운 사랑 넘치는 인민의 지하궁전, 평양지하철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하철을 '평양의 기념비적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



로 소개하며 정권수립 65주년 기념일(9월 9일)을 앞두고 수도 평양의 현대적인 생활·문화시설을 선전함.

- 신문은 평양 지하철 개통 이후 40년이 지났다며 세계적으로 평양 지하철만큼 "철두철미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해 건설되고 복무하는 그런 지하철도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함.

● **북한상품 중국서 인기 여전...투자 유치는 '냉랭'(9/6, 연합뉴스)**

- 6일 중국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개막한 제9회 중국-동북아박람회 행사장에 150㎡ 규모로 설치된 북한 전시관은 온종일 중국인 관람객들로 붐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관람객들은 해산물 가공식품, 건어물, 들쭉술, 송이술, 산삼꿀 등의 식료품과 의류, 건강보조식품 등을 관심 있게 살펴봤고 중국산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주저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대량으로 사들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최근년간 평양의 10여 개 구역에 80여 개 공원들(평양민속공원 등) 새로 건설·개건 등 전국 각지(황해남도: 해주민속공원·원산시: 해안유회장 등)에 공원·유원지 등 "많은 문화휴식터 건설·개건" 선전(9.5, 중통)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택시용 中 차량 60대 수입(9/4,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 자동차업체 비야디(BYD)의 'F3' 승용차 60대를 평양의 택시로 쓰기 위해 구매했다고 보도함.
- RFA는 평양에서 운행 중인 택시가 약 1천 대라며 택시뿐 아니라 버스와 일반 승용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임.

● **WFP 8월 대북식량지원량, 2년 만에 최저(9/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약 2천 50t으로 최근 2년간 가장 적은 월간 지원량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WFP의 월간 지원규모는 3천여t(1월)→6천여t(2월)→4천여t(3·4월)→3천여t(5·6월)→2천900t(7월)으로 매달 감소해 8월 지원량은 올해 들어 가장 적었으며, 2011년 8월 200t의 식량을 지원한 이후 2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함.
-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올해 들어 국제사회의 모금액이 급격



히 감소해 지난 5월부터 북한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 북한 주민 74만 3천여 명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목표 만큼 식량을 제공하지 못했고 지원 기간도 줄었다"고 설명함.

- **미국 국무부, 北 재초청하면 킹 특사 파견(9/5, 미국의 소리(VOA))**
 -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가 "북한이 다시 초청하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파견할 방침"이라면서 북한이 억류 중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를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北 올 여름철 폭우 사망자 33명으로 늘어(9/5, 연합뉴스)**
 - 5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8월 말까지의 북한 수해 상황을 종합한 '재난 구호를 위한 긴급자금(DREF)'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초 내린 폭우로 북한 6개 도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 33명이 사망하고 18명 실종됐으며 2명이 부상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日 조사단, 北서 일본인 매장지 추가 발견(9/6, 미국의소리(VOA))**
 - 일본 민간조사단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매장지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6일 보도함.
 - 일본 조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함경북도 고무산과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등에서 일본 군인과 군무원, 영유아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힘.
- **北 아리랑공연, 9월 말까지 연장(9/6, 연합뉴스)**
 - 6일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5일 이 여행사에 아리랑 공연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북한 당국은 "우리는 친선과 평화를 위해 관광객들을 환영한다"며 아리랑 공연 기간 연장도 "관광객들과 북한 주민들의 공연 관람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구글과 북한 인터넷망 구축 협의 의사 있다(9/6, CNBC)**
 - 북한 휴대전화 사업에 참여하는 이집트 통신 재벌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회장이 북한의 모바일 서비스와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을 위해 구글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CNBC가 6일 보도함.
 - 사위리스 회장은 "우리가 북한을 내버려둔 채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핵전쟁 같은 비정상적인 일만 하려들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손을 뺐는다면 그들을 천천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북한, 몽골·러시아와 경협 가속화(9/6, 연합뉴스)**

-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은 6일 중국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7회 동북아합작고위급포럼에 참석, "현재 우리나라와 몽골 사이에 일련의 긍정적인 협조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화물수송 협조 문제와 나선 특구에 대한 몽골기업들의 투자 문제,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조 문제가 합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또한 구 부상은 러시아와의 경협 상황에 대해서는 "나진~하산 철도 개통식이 이달에 진행되고 (러시아가 장기임대) 나진항 3호 부두 개보수 공사도 올해 말까지 완공된다"고 전함.

● **시리아 대통령, 北 김정은에 축전(9/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시리아간 화학무기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수립 65주년(9월 9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친선을 강조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나는 이 기회에 조선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말함.

● **방북 로드먼 베이징 도착...케네스배 동행 안해(종합2보)(9/7, 연합뉴스)**

- 지난 3일 방북했던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52)이 일정을 마치고 7일 기착지인 중국 베이징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로드먼은 그러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데리고 돌아오지는 않음.

● **北-스위스 합영회사, 북한 지방에도 연내 약국 개설(9/8, 연합뉴스)**

- 8일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공동투자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말까지 평안남도 평성에 약국 체인점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평스제약합영회사는 스위스 기업과 북한 보건성 산하 평양제약공장이 공동투자한 회사로 2004년부터 평양에서 비타민C, 해열진통제 등의 약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평양에서 약국 9개를 운영 중임.

■ 기타 (대외 일반)

- 일본의 '집단지행 자위권 행사용인' 움직임에 대해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팽창 야망실현"이라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빠져들지 말고 스스로 사숙고하라'고 지속 강조(9.2,중방)



나. 6자회담(북핵)

-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 北서 6자회담 재개 논의"(9/2, 연합뉴스)
 - 연합뉴스의 2일 보도에 따르면,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최근 방북 성과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중조(북중) 쌍방은 현재의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북한 비핵화 입장 변화 감지 안 돼(9/6, 연합뉴스)
 -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6일 "중국 외교부가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결과를 관련국에 디브리핑(사후설명)했지만 거기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이 소식통은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느냐고 질문했지만 중국 측은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며 "우다웨이의 방북 기간에 양국이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조선신보 "'이석기 사건'은 국정원이 꾸며낸 것"(9/6,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6일 남한의 '이석기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함.
 - '33년만에 부활한 내란음모죄'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이석기 사건을 "진보세력들에 대한 탄압 광풍"이라고 규정하며 "(대선 개입 의혹으로) 개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위해 꾸며낸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밝힘.
 - 또한 '남조선 당국자들이 "광란적인 '종북' 소동으로 동족대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온 겨레가 좋게 발전되기만을 바라는 북남관계를 당리당략에 악용해 찬물을 끼얹으려는 위정자가 누구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 北, 평양에서 '태극기 게양·애국가 연주' 첫 허용(종합2보)(9/6, 연합뉴스)
 - 통일부가 1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대회 참석차 방북하는 선수단은 대한역도연맹 소속 7개 클럽팀 선수와 임원, 역도연맹



관계자 등 41명임.

● **北조평통 "이석기-北 연계 주장은 도발"(9/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6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함.
- 조평통은 보도를 통해 '이석기 사태와 관련, "괴뢰보수패당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 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서해 軍통신선 정상개통...개성공단 재가동 탄력(9/7, 연합뉴스)**

- 남북이 개성공단 출입경 명단을 주고받는 수단인 서해 군(軍) 통신선이 7일 정상적으로 재개통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저녁 9시15분에 광케이블 3회선(직통전화·팩스·예비선)을 통한 음성통화와 자료 송수신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 9시 광케이블을 통한 시험통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군 통신선이 정상적으로 복구됐다"고 밝힘.
- 남북은 지난 5일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함.

● **北통신 "이석기 사건, 남북대화에 대한 도발"(9/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남한의 '이석기 사건'에 대해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이며 평화·대화 분위기에 대한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라고 비난함.
- 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빠졌다고 이석기 사건은 "궁지에 몰린 자들이 조작해낸 현대판 마녀사냥으로서 파쇼독재 강화와 북남대화 분위기 파괴를 노린 새로운 정치모략행위"라고 밝힘.

● **北, '이석기 사건' 사흘째 비난..."동족대결 조장말라"(9/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파쇼 광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보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내란음모' 감투를 씌우고 우리와 억지로 연결해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그들(이석기 등)의 행동은 누구의 지령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이 '탄압'을 받는 것은 이들이 누구보다도 '유신' 독재 부활을 반대하고 국정원 해체를 앞장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합의 못해…남북, 10일 재논의(9/2, 연합뉴스)**
 - 남북은 2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은 합의하지 못했으며 양측은 오는 10일 공동위 2차 회의를 갖고 공단 재가동 시점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공단 재가동에 앞서 현재 단절된 상태인 서해 군(軍) 통신선의 복구, 공단의 기반시설 정비,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측은 조속한 공단의 재가동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 양측은 공동위 산하에 설치된 4개 분과위 협의를 2차 회의 이전까지 우선 진행해 재가동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하고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 회의는 4일, 출입체류 분과위와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 회의는 5일 각각 열기로 합의함.

- **장웅 北IOC위원, 평창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용의 시사(9/3, 미국의소리(VOA))**
 -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강원도 원산에 건설중인 마식령스키장을 활용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분산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일 보도함.
 - 장 위원은 "그런 것(평창 동계올림픽)을 다 연결하고 건설하는 것"이라며 "스키장이 건설되면 국제대회에도 쓰고, 가능하면 올림픽 경기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올림픽 남북 공동 주최는 IOC 및 국제스키연맹 등과 복잡한 논의가 필요해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도 함께 피력함.

- **남북, 이산가족 남북 상봉단 숙소 놓고 이견(9/5, 연합뉴스)**
 - 금강산에서 오는 25~30일 열릴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사용하게 될 남북 상봉단의 숙소 문제에 대해 남북간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 이산가족들의 숙소로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3일 전달했으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객이 예약돼 있어 두 호텔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해금강 호텔과 현대생활관을 사용할 것을 지난 4일 제의함.
 - 우리측은 5일 통지문을 통해 "해금강 호텔은 2008년 후 점점 보수가 안돼 안전성에 우려가 있고 현대생활관은 규모가 작아 우리측 이산가족 모두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북측의 제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2009년과 2010년 상봉행사를 개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날 재촉구함.



■ 기타 (대남)

- 개성공단 '제7차 남북 당국 실무회담' 합의서 채택을 거론하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 및 남북 공동선언 이행투쟁' 지속 주장(9.2,평방)
-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9.2 진행 및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들 구성, 기능과 역할, 운영 방식과 방법을 협의 확정" 등 회의 결과 신속 보도(9.3,중통·중방·평방)
- 유엔인권조사위 조사단(COI) 방한 등 관련 '북 인권문제란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할 흉계 밑에 고안된 모략날조품,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용납 못할 범죄흉계, 남북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 이라고 비난(9.3,평방)
- 北, 통합진보당 소속 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8.30) 발언(국정원이 내란음모사건 조작을 위해 인권유린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등) 보도(9.3,중통)
- 北, "南 시민사회단체(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8.31 국정원 앞)와 재미동포들(8.30, 뉴욕)이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 조작'을 규탄 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보도(9.4,중통)
-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한 것을 거론하며 " 지금은 이 소중한 성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그 방도가 대화와 협력을 다방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9.7,노동신문/민족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 北서 6자회담 재개 논의">(9/2, 연합뉴스)
 -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최근 방북 성과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중조(북중) 쌍방은 현재의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답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우 특별대표의 이번 방북을 통해 청취한 북한 측의 6자회담 재개 및 비핵화 관련 입장을 한국, 미국, 일본 등에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러 "한반도정세 안정화...북핵협상 재개 희망">(9/3,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국제관계대학(MGIMO) 연설에서 "한반도 정세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그동안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등의 위협적 발언들을 우려해왔다"며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 이제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과정이 재개될 것"이란 희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음.
- <케리 "시리아 개입 안하면 북핵정책도 차질">(9/4, 연합뉴스)
 - 케리 장관은 3일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하지 않으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노력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케리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의회가 시리아에 대한 제한적인(군사) 대응을 승인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다"면서 이란과 북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을 지목했음.
 - 그는 특히 "북한도 우리의 침묵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요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아사드 정권에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백년간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헤이글 "北 화학무기 엄청난 양...한국과 대응 논의">(9/5, 연합뉴스)
 -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북한에 의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고 밝혔음.



- 헤이글 장관은 또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약화된다면 다른 정권들이 화학무기를 습득하거나 사용하려고 덤빌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미국은 올해 초 발간한 2012년 북한의 군사력 증강 보고서에서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을 통해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화학무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보유규모는 평가하지 않았다.
- <中, 6자회담 당사국 반관반민 회의 제안(종합)>(9/5, 연합뉴스)
- 중국이 6자회담 당사국 수석대표와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반관반민 성격의 회의를 베이징에서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중국 측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이번 회담이 대화 정국을 조성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관건은 북한이 얼마나 변화를 보이냐에 있지만 아직 이런 조짐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의 중재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음.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정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한반도) 핵 문제 해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가 관련국들의 공동 이익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6자회담은 여전히 반도의 핵 문제 해결, 평화·안정 수호를 위한 중요한 틀"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비핵화 입장 변화 감지 안 돼’>(9/6, 연합뉴스)
-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6일 "중국 외교부가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결과를 관련국에 디브리핑(사후설명)했지만 거기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베이징 주재 외교관들을 잇따라 불러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최근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 중국 외교부는 우 특별대표가 방북 기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유관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원칙을 북한에 재차 강조했다면서, 최근의 남북 관계 개선 등을 계기로 당사국들이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음.
- <시진핑, 오바마에 '6자회담 재개' 촉구>(9/7,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G20 정상회담이 열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 논의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고 중국중앙(CC) TV가 보도했음.
-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견지하며 대화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각국이 '9·19공동성명'의 입장으로 돌아가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시 주석은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고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해결만이 유리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고 CCTV는 전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시리아 공격 당위성과 북한 연계'…北반응 주목>(9/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미국의 주요 방송에 나와 시리아 사태를 내버려두면 화학가스 등 대량파괴무기(WMD)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 이란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고 북한을 직접 거론,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됨.
 - 북한은 시리아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북미 등 대외적 유화 공세의 과정에서 시리아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그러나 미국 정부가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직접 북한을 거론한 이상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임.
- <“미국 국무부, 北 재초청하면 킹 특사 파견”>(美방송)(9/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가 "우리는 북한이 다시 초청한다면 킹 특사를 북한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다시 초청하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파견할 방침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 이 관리는 이어 북한이 억류 중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음.

다. 중·북 관계

- <북한상품 중국서 인기 여전…투자 유치는 '냉랭'>(8/26, 연합뉴스)
 - 중국에서 북한 상품은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올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은 중국 내 대북 투자 분위기는 아직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대북 소식통들은 중국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투자의 특성상 북한에 대한 경제분야 제재가 여전히 유효해 '속도 조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냉랭한 기류를 반영하듯 지난해까지 활발했던 북한의 대중국 투자 유치 활동도 눈에 띄게 위축됐음.



라. 일·북 관계

- <“日 조사단, 北서 일본인 매장지 추가 발견”(美 방송)>(9/6, 연합뉴스)
 - 일본 민간조사단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매장지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6일 전했다.
 - 일본 조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함경북도 고무산과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등에서 일본 군인과 군무원, 영유아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 러·북 관계

- <북한, 몽골·러시아와 경협 가속화>(9/6, 연합뉴스)
 -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은 6일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열린 제7회 동북아 합작고위급포럼에 참석, "현재 우리나라와 몽골 사이에 일련의 긍정적인 협조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화물수송 협조 문제와 나선특구에 대한 몽골기업들의 투자 문제,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문제가 합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 구 부상은 러시아와의 경협 상황에 대해서는 "나진~하산 철도 개통식이 이달에 진행되고 (러시아가 장기임대한) 나진항 3호 부두 개보수 공사도 올해 말까지 완공된다"고 전했다.
 -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하산~나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개발을 통해 유럽으로 운송되는 아시아권 수출 화물의 일부를 나진항으로 끌어들이 나진~하산 구간 철로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실어나른 뒤 유럽으로 운송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

바. 기 타

- <북, '105 연구소'서 화학무기 연구>(9/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군수분야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자강도 강계시의 한 골짜기에 생화학무기 연구소가 있다"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연구소의 위장명칭은 105연구소"라고 4일 밝혔다.
 - 보안상 익명 처리를 부탁한 이 소식통은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화학무기 연구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면서 "강계국방대학 안에 화학학부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했다"고 주장했다.
 - 그에 따르면 북한 '105 연구소' 연구사들은 이란과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을 뺄질나게 방문했고, 화학무기와 미사일 등을 수출하고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시리아와의 화학무기 거래가능성을 제기했음.
- <EU, 유엔 제재 북한·이란·시리아와 교역 격감>(9/5,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제재 대상국인 북한, 이란, 시리아와의 교역이 지난해 44.3% 감소한 9천10만2천 유로(약 1천350억 원)를 기록,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EU의 북한에 대한 수출은 6천656만 유로로 전년보다 63.9% 증가했으나 수입은 2천354만2천 유로로 80.6%나 감소했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과 EU 간 교역은 1천200만 유로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역액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한편, EU는 북한에 대해 외환, 국채, 귀금속 거래 금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및 장비 금수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 <핵실험금지조약기구 "북 상시 감시">(9/5,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기구(CTBTO)는 5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s)' 기념 행사를 열고 북한을 비롯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에 서명을 촉구했음.
 - 핵실험금지 조약기구의 홍보국 관계자는 첨단 장치를 갖춘 관측소는 지진파와 수증음파, 초저주파, 방사성핵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하루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5일 말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사우디, 미국의 시리아 사태개입 촉구한 이유는?>(9/2, 월스트리트저널)
 - 한국 관료들은 최근 미국과 개최된 회담에서 미국이 시리아 사태에 대한 개입을 계속 지연하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여지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미국 관료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 중동 관료들과 미국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한적인 시리아 공습 발표를 개탄하면서 보다 더 과감한 조치만이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음.
 -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백안관은 제한적인 군사 개입 검토하고 있음. 대응 의지에 대해 미국이 우방들을 안심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부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외교무대에 덜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움직임의 결과이기도 함.
- <러셀 美국무부 차관보 방한... "시리아 문제도 협의">(9/5,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강하고 분명한 성명을 평가한다"면서, "한국 정부 인사들과 북한 문제를 포함한 양자 이슈와 지역 문제, 시리아 문제를 포함한 중요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북한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셀 차관보가 한국측 정부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 과정에서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의 지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러셀 차관보는 또 "한미동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균형 전략의 중심 기둥"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좋은 상태에 있으며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韓中 FTA 2단계 양허협상 돌입...곳곳 '암초'>(9/6, 연합뉴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틀인 1단계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양허 협상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1단계 타결은 작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1년 4개월 만임.
- 한중 양국은 이르면 오는 11월 개시 예정인 2단계 본협상에서 일반·민감·초민감에 들어갈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교환한 뒤 '주고받기식'의 양허 협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과의 FTA 체결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 품목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수 있는냐임.
- 소비재 중에서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품목은 완성차임. 중국은 자국의 자동차업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완성차를 초민감품목에 포함해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개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협상단은 중국이 시장을 열지 않으면 한국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수산물 수입금지 韓결정에 日 "과학적 대응 바란다">(9/6,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음.
- 아울러 일본시간 8일 도쿄의 2020년 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직전에 나온 한국의 조치가 도쿄의 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음.

라. 미·중 관계

● <<G20> 오바마-시진핑, 신형 대국관계 등 협의>(9/6,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G20 정상회담



이 열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 주요 국제현안 해결방안과 양자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두 정상은 시리아 사태,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 등 주요 국제 안보현안과 세계경제 회복방안, 위안화 환율과 첨단 기술제품 수출 문제 등 무역 및 투자 현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공격 지지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중국은 시리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공습에 반대하고 있음.

마. 미·일 관계

- <日, 센카쿠에 기상관측소 건설하려다 美압력에 철회>(9/5, 연합뉴스)
 - 최근 비밀해제된 미국 공문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971년 센카쿠(중국어명: 다오위다오)열도에 기상관측소를 건설하려다 미국의 압력을 받고 철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음.
 - 관측소 건설 계획은 센카쿠 시정권이 이듬해인 1972년 반환될 것임을 내다본 데 따른 것으로, 일본측은 이 관측소를 장차 센카쿠 주변 석유탐사 거점으로도 사용하겠다고 미국측에 설명한바 있음.
 - 한편, 미국은 1971년 6월 체결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1972년 센카쿠 시정권을 일본에 반환했으나 영유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로 넘겼음.
- <미·일 정상 전화회담..."시리아 공조 확인">(9/3, 연합뉴스)
 -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지난 21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시리아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날 두 정상의 전화회담은 미국측의 요구로 약 30분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단행할 경우 일본이 지지와 지원을 해줄 것을 아베 총리에게 요청했을 것으로 보임.
 - 교도통신은 두 정상의 전화회담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경우 지지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전했다.
- <미·일 정상 G20서 양자회담...북핵·시리아 논의>(9/6,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했음.
 -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회동에 앞서 아베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무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나 북한의 국제 법 준수 중요성 등을 포함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두 정상은 회동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면 한국을 포함해 3국이 방어 능력을 높이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바. 미·러 관계

● <G20, 시리아 문제 격론장 되나...미-러 공방 예고>(9/2, 연합뉴스)

-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시리아 사태가 공식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사상자를 낸 최근 화학무기 공격과 그 배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치열한 막후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음.
- 서방 국가들의 군사 개입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가운데 국내외에서 '여론몰이'가 절실한 미국은 G20을 무대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러시아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임.
-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푸틴이 G20에서 오바마에 보복을 노린다'는 분석기사에서 지난 6월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때만 해도 '왕따'에 가까웠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G20에서는 시리아 사태 등과 관련해 입지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음.

● <러시아, 제3국 자국민 체포 관련 美에 항의서한>(9/5,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 인권 담당 특사 콘스탄틴 돌고프는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외무부 청사로 불러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제3국에서 러시아 국민이 체포돼 미국으로 강제이송되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하고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음.
- 돌고프 대사는 의심스러운 혐의로 러시아인들을 체포하는 관행이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도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한편,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일 미국 사법 기관의 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는 자국민들의 외국 여행 자제를 권고한 바 있음.

● <러의회 대표단 내주 방미..美하원의장 면담 거부>(9/5, 연합뉴스)

- 러시아 의회 대표단이 미국 의원들과 시리아 군사공격 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방미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 하원 의장은 면담 거부 의사를 밝혔음.
- CNN 방송은 베이너 의장의 면담 거부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러시아 의회 대표단이 미국에서 냉대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음.



-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논란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아직 유엔 조사단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모든 책임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음.

● <미국방 "러시아가 시리아에 화학무기 제공" 주장>(9/5, 연합뉴스)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러시아가 그것들(화학무기들)을 공급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제공하고 있다. 시리아는 일부를 만들기도 한다"고 출처에 대해 말했음.
-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헤이글 장관은 의원에게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간 잘 알려진 시리아와 러시아 간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며 시리아의 화학무기 대부분도 시리아가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그는 러시아가 다양한 무기를 시리아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 중 일부는 변형될 수 있고,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 중·일 관계

● <시진핑, 아베 총리에게 일침... "역사를 똑바로 봐야">(8/25,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 아베 총리와 짧은 만남을 갖고 "일본은 다오위다오(釣魚島)와 역사 등의 민감한 문제를 정확히 처리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일본은 마땅히 역사를 똑바로 보고 미래를 대하는 정신의 기초 위에서"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음.
-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으로 돌아가 중·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아. 중·러 관계

● <<G20> 시진핑-푸틴 회담...에너지·군사 협력 강화 합의>(9/2,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자 회담을 하고 에너지와 군사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시 주석은 "중·러 쌍방이 에너지, 항공 등 전략적 대형 프로젝트 협력을 더욱 빨리 추진하고 군사기술 협력을 계속 심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경제무역·에너지·공업·첨단기술·군사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더욱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음.



-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회사들은 이날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연가스 거래와 관련한 협력 협의서에 서명했음.

자. 일·러 관계

● <일본, 미-러 대치 시리아사태 고민 가중>(9/2, 연합뉴스)

- 시리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동맹국인 미국을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대 시리아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논의를 앞두고 있어 속사정은 매우 복잡한 상황임.
- 아베 총리는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일본이 러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쿠릴 협상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 한편, 아베 총리는 미국의 대 시리아 군사개입이 확인되면 각료회의를 개최, 군사 개입에 대한 지지표명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차. 기 타

● <러, 한국측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 지연에 불만 표시>(9/5,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최근 관영 신문 '로시이스키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파트너들로부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길 원하는지 듣고 싶다"며 "한국 정부가 입장을 결정해 명확한 답을 주길 기대한다"고 한국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음.
-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가스관 건설 구상을 제안하고 러시아가 그것을 지지한 것인데 지금은 한국 스스로가 가스관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라고 꼬집었음.

● <한·러, 극동진출 활성화·북극항로 개발 등 논의>(9/7, 국민일보)

- 박근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6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경협과 북핵 문제를 논의했음. 특히 두 정상은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관련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북한 나진항 현대화 사업, 러시아 경협 차관 상환, 한·러 자유무역협정(FTA), 푸틴 대통령의 방한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음.